

글로벌 시황 브리핑: AI 랠리의 지속과 변동성 트리거

2026년 7월 1일 | 미·국내 증시 및 FICC 매크로 동향

2026-07-01

기관의 귀환



KOSPI 8,400선 탈환. 외국인 장 막판
1조 원 매도 물량 출회에도 불구,
기관투자자 주도 지표 방어 성공

엇갈린 월가



미국 나스닥 2%대 급등 및 6년 만의
최고 분기 실적 달성. 반면, 사상 최대
빚투(2100조 원) 부담으로 인한
여름철 조정 경고(BofA) 동시 부각

매크로 경계령



7월 2일(목) 한·미 핵심 물가/고용 지표와
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집중되며
단기 최대 변동성 구간 진입 예상

 미국 (The Tech Engine)

S&P 500

7,440.43 (+1.18%)



기술주 및 AI 펀더멘털 강화로 전 지수 동반 상승.
6년 만에 최고의 2분기 달성.

 유럽 (Geopolitics & Defense)

DAX

24,920.55 (+1.19%)



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 및 방산주 강세 주도로
전반적 상승세 (STOXX 50 +0.62%).

 중국 (Macro Recovery)

항셍

23,026.68 (+0.71%)



제조업 PMI 호조를 바탕으로 상하이 본토 및 홍콩 증시
동반 상승 마감.

 / 아태 (Currency & Commodities)

닛케이

56,734.00 (+0.46%)



엔화 약세 기반의 수출주 강세(일본) 및 자원주 중심의
상승(호주). 1분기 글로벌 해외직접투자액 36.2% 증가의 수혜.

미국 주요 지수 동향

NASDAQ

25,820.15 (+2.07%) ↗

반도체/빅테크 중심 쏠림 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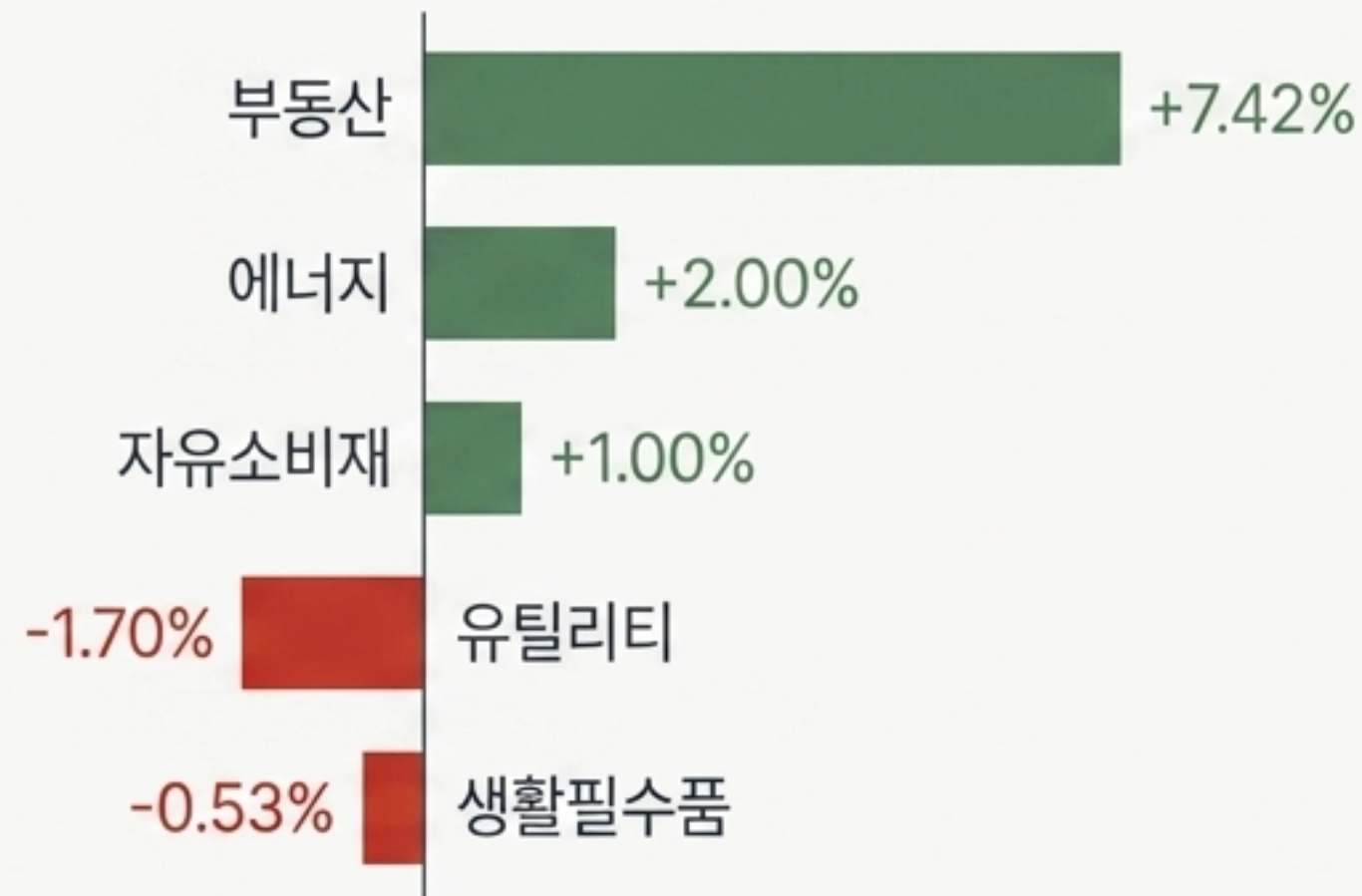
S&P 500

7,440.43 (+1.18%) ↗

DOW JONES

52,182.74 (+0.59%) ↗

섹터별 수익률 양극화



Key Insight Marker

나스닥, 주식 호가 데이터를 블록체인 인프라(파이스 협력)로 제공 시작하며 기술주 모멘텀 추가 확보. 반도체와 빅테크 수익률 격차 확대 지속.

월가의 딜레마 - AI 랠리 지속 vs 차익실현 압력

 강세론 (Bullish - 랠리 지속)	
주체	CFRA
목표치	S&P 500 7,730
핵심 논리	견고한 기술주 펀더멘털. 6년 만에 최고의 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상승 모멘텀 유지. '칩플레이션' 공포에도 불구하고 AI 주도 성장 지속.

 약세론 (Bearish - 3단계 조정)	
주체	BofA (Bank of America)
전망	여름 내 '3단계 조정' 발생 가능성, 투자자 차익실현 권고
리스크 요인	미국 내 사상 최대 규모의 '빚투' (2100조 원 돌파).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 경계감 고조 및 밸류에이션 부담.

Quadrant 1: 국채 (Rates)

미 국채 10Y

4.537% (+5bp) 

Signal: 금리 상승 (FOMC 매파 기조 유지)

Quadrant 3: 에너지 (Energy)

WTI 원유

\$70.44 (+\$2.62)

Signal: 호르무즈 해협 무력공방 리스크 재점화 및 OPEC 감산 연장 기대 (트럼프 가격 인하 촉구에도 2%대 상승)

Quadrant 2: 환율 (FX)

원/달러: ₩1,445.00 (-5.30원) |
달러인덱스: 0.1 (-0.32)

Signal: 달러 약세 및 원화 강세 (유로 강세 연동)

Quadrant 4: 안전/대체 자산 (Safe Havens)

금: \$20 (+\$18) |
비트코인: \$70 (+\$1,240)

Signal: 전통 안전자산(금) 선호 심리와
디지털 자산(비트코인) ETF 순유입 지속 동시 발생.



KOSPI 8,476.48 (+0.97%)

- Status: 사흘 만에 반등하며 8,400선 탈환 성공.
- Driver: 반도체 투자 훈풍 및 기관 매수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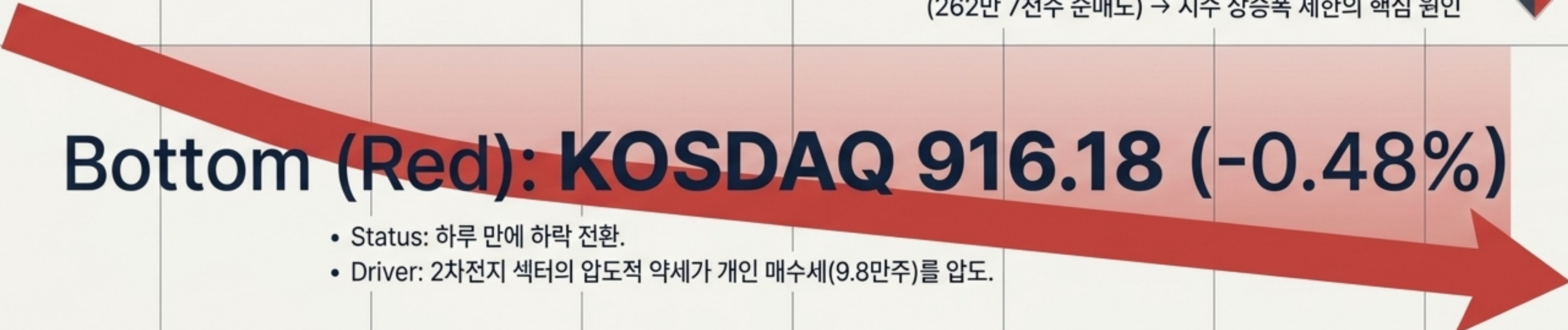


기관 (Institutions): 273만주 순매수
(시장 지지 및 KOSPI 반등 견인)

자금 흐름 (Flow of Funds)

외국인 (Foreigners): 장 20만주 순매수
(시장 지지 및 KOSPI 반등 견인)

외국인 (Foreigners): 장 막판 1조 원 규모 대량 매도
(262만 7천주 순매도) → 지수 상승폭 제한의 핵심 원인



Bottom (Red): KOSDAQ 916.18 (-0.48%)

- Status: 하루 만에 하락 전환.
- Driver: 2차전지 섹터의 압도적 약세가 개인 매수세(9.8만주)를 압도.

KOSPI 섹터별 자금 이동 (1D vs 1W)

Green Zone (자금 유입 주도)

제조업

1D +4.91% | 1W +6.15%

(반도체 강세의 최대 수혜)

의약품: 1D +0.64% | 1W +1.33%

보험: 1D +0.61% | 1W +1.63%

Red Zone (자금 이탈 심화)

의료정밀: 1D -6.85% | 1W -0.43%

섬유의복: 1D -3.79% | 1W -1.73%

은행

1D -7.19% | 1W -12.92%

(1주일간 가장 극심한 자금 이탈 발생)

Insight Note: 은행업의 단기 급락(-12.92%) 흐름과 제조업(+6.15%)의 랠리가 완벽히 대비되며, 시장 내 극단적 자금 쏠림 현상을 증명.

반도체 랠리 (상승 주도 엔진)

삼성전자 (1952.7조):	334,000원 (+3.41%) - 시장 반등의 핵심
SK하이닉스 (1888.7조):	2,650,000원 (+0.84%)

2차전지 쇼크 (하락 주도 엔진)

LG에너지솔루션 (84.7조):	362,000원 (-9.61%) - 코스닥 하락의 주원인
LG화학 (19.8조):	280,000원 (-9.09%)
삼성SDI (39.2조):	487,000원 (-4.88%)
POSCO홀딩스 (25.1조):	317,000원 (-4.80%)

바이오/플랫폼/자동차 (혼조세)

삼성바이오로직스:	1,391,000원 (-3.94%)
NAVER:	199,000원 (-2.45%)
현대차	(-0.40%) / 기아 (-1.85%)

목 (7/2) - 최대 변동성 구간 (Super Thursday)

수 (7/1) - 선행 지표 점검

🇺🇸 ADP 비농업부문 고용
변화 / ISM 제조업 PMI

🇰🇷 6월 무역수지

월 (7/6) - 서비스업 확인

🇺🇸 ISM 비제조업
구매자지수 및 서비스
PMI

[물가] 🇰🇷 소비자물가지수 (CPI) 발표
(예측 YoY 3.2%)

[고용] 🇺🇸 비농업고용지수 (예측 114K),
실업률 (예측 4.3%), 시간당 임금

[실적] 🇰🇷 삼성전자 2026년 2분기
잠정실적 발표 (제조업 투심의 향방)

Key Takeaway: 목요일, 한국의 물가·핵심 기업 실적과 미국의 고용지표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며 하반기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대 변수

핵심 전략 및 포지셔닝 인사이트



Card 1: 포지션 재점검 (리스크 관리)

AI·반도체 주도의 상승 펀더멘털은 견고하나, 월가의 여름 조정 경고(BofA)와 장막판 외국인 1조 원 대량 매도 매도 흐름을 고려할 때 부분적 차익실현 및 방어적 리스크 관리 병행 필수.



Card 2: 매크로 지표 주시 (방향성 탐색)

7월 2일(목)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(비농업/실업률)와 한국의 CPI 지수 결과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달러/원 환율(현재 1,445원 1,445원)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트리거.



Card 3: 실적 장세 대비 (모멘텀 선별)

단일 종목으로 KOSPI 반등을 주도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 결과에 주목. 실적 서프라이즈 여부에 따라 최근 시장 자금이 집중된 '제조업 (+6.15% 1W)' 섹터의 추가 상승 모멘텀 확보 여부 판가름.